



관내 동향

□ KAI,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기 선보여

- 자주국방과 미래 항공우주시장 진입 밑거름 마련-

-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4월 9일 사천에서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기를 출고식을 개최
-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서욱 국방장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안현호 KAI 사장 등이 참석
- 시제기의 고유명칭은 ‘KF-21’이며, 통상명칭(별칭)은 대국민 명칭 공모를 통해 ‘보라매’로 선정함
- KF-21은 건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비만 총 8조 8,000억 원이 투입
- KAI는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KF-21 체계개발계약을 체결, 2018년 기본설계(PDR)를 마치고 2019년 2월 부품 가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상세설계(CDR)를 통과, 시제기 출고식 후에는 내년 진행될 초도비행을 준비, 오는 2026년 6월까지 지상·비행시험을 거쳐 KF-21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됨
- 안현호 KAI 사장은 “KF-21은 정부와 연구기관, 협력업체들이 한 팀으로 만든 성과물이자 도약대”라며 “이를 바탕으로 뉴스페이스와 친환경 에어 모빌리티, 유무인 복합체계 등 신성장사업을 추진 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함



- 동체길이 : 16.9m
- 폭 : 11.2m
- 높이 : 4.7m
- 최대속도 : 2200km/h
- 항속거리 : 2900km
- 무장탑재량 : 7.7t
- 쌍발엔진 탑재
- 저피탐 기술 적용

KF-21(보라매) 시제기

□ 사천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기업 대표 간담회 개최

- 사천시는 지난 4월 1일 시의 주력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항공기 부품제조산업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항공기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
- 이날 간담회에서 항공기부품제조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사천시 지원계획 논의, 항공기부품제조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속조치 및 기업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황태부 항공산업생존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 업체들은 숙련된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데 사천시가 앞장서줘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발언
- 사천시는 주요 항공기업 대표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항공기부품제조산업 지원대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임

□ KAI-KAIST 항공우주기술연구센터 설립 MOU 체결

-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카이스트와 손잡고 항공우주기술연구센터를 설립
- KAI와 카이스트는 3월 31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항공우주기술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음
- KAI 관계자는 “우주·미래 비행체기술 관련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위해 협약을 맺었다.”며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과 핵심기술 선점 및 원천 기술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
- MOU체결에 따라 양측은 오는 2023년까지 위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우주·미래 비행체 기술개발 등 공동연구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



도내 동향

□ 경남도 주력산업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 경남이 주력산업으로 육성중인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됨
- 경남도는 3월 1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신청한 항공제조업이 정부의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 되었다고 밝힘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혜택 기업의 대부분인 78%가 경남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남 항공제조업체 종사자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
- 경남도 및 사천시는 지난해부터 항공제조업계가 B737Max 운항·생산 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우선 과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을 정부에 요청

- 김경수 지사는 “경남이 80%를 차지하는 항공제조업이 이번에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어려운 항공제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노동자들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숙련된 기술인력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

□ 경남TP 현장맞춤형 항공정비 인력 양성

-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는 항공정비(MRO) 현장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을 교육생을 모집
- 현장맞춤형 항공MRO 인력양성 과정은 5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하루 7~8시간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
- 교육생은 한국항공서비스에서 인턴으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으며, 월 182만 원(현장실습) 교육훈련 수당 지급
- 경남TP는 향후 교육생을 항공MRO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예정



국내 동향

□ "역시 회돌"…대한항공, 분기 연속 1,000억 원대 영업이익 기대

- 대한항공이 화물사업 호조로 2분기 연속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 달성 전망
- 4월 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는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7,000억원, 영업이익 1,070억 원으로 4분기 연속 흑자 달성 기대

- 여객 수요 회복 전까지 화물로 버티겠다고 선언한 대한항공은 올해 1월과 2월에 각각 12만톤, 11만2000톤의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말 특수를 누린 지난해 11월, 12월 운송량과 비슷한 수준
-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인천공항의 화물 수송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미주, 일본, 중동 노선에서의 호조로 화물 수요가 2019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대한항공은 2분기에도 화물 운송에서 호실적 기대
- 대신증권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공화물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



해외 동향

□ 미국 UPS, 화물배달에 수직이착륙 전기항공기 투입

-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물류업체인 UPS가 전기로 운용되는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도입해 물류 서비스에 투입
- UPS는 미국의 베타 테크놀로지로부터 전동수직이착륙기(eVTOL) 1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eVTOL은 한번 충전에 시속 273km의 속도로 최대 402km까지 비행이 가능
- UPS의 이번 eVTOL 도입은 항공 물류 강화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상 기반 비즈니스에서 온실가스를 약 12% 줄이고 2025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 가운데 25%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숨막히게 조여오는 미국... 속타는 중국 항공업계

- 중국이 미국 보잉, 유럽 에어버스와 경쟁하겠다고 내놓은 중형 여객기 C919를 손에 쥐고 본격적으로 여객기 시장에 뛰어들
- 여객기 시장의 큰손인 중국이 자국산 여객기를 생산하여 구매에 나서기 시작했으니 보잉과 에어버스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하지만 C919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미국과 유럽 기업들에서 들여오는데, 미국 정부가 관련 기술과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제동을 걸
- 중국이 항공업계의 '큰손'이라 미국이라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나, 미국이 제재를 고수하는 것은 주요 기술이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 선두주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국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 업계는 과연 누가 승기를 잡게 될지 주목하고 있음

작성일	2021. 4. 14.(수)	보고일	2021. 4. 16.(금)
부서명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오은미(055-831-3470)